

근로자들의 마음을 보듬는 감성안전경영 전개

장관섭 (주)영광YKMC 대표이사

충남 아산시 아산테크노벨리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영광YKMC. 반도체는 물론 항공기에 들어가는 첨단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은 산단 내에서도 남다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가공에서부터 조립, 표면처리 등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공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하나의 공정



에만 집중하는 것에 비해 (주)영광YKMC는 부품 생산 전문업체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술의 특허 4건, 실용신안등록 12건 등 총 16개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전문업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다. 특히 (주)영광YKMC의 장관섭 대표이사는 지난해 표면처리 직종에서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면서 회사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이곳은 지역 안전인들 사이에서도 각별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근로자들의 마음을 보듬는 이른바 감성 안전경영이 모범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장관섭 (주)영광YKMC 대표이사를 만나봤다. 취재 정태영 기자 anjty@safety.or.kr



17살 청년, 안전에 눈 뜨다

근로자들이 선반 드릴 작업을 할 때 면장갑부터 찾는 모습은 산업현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위생적인 문제도 있지만 금속, 목재 등의 원재료에 의한 찰과상이나 베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일선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장 대표는 절대 면장갑을 끼지 않는다.

그 시작은 197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 대표는 금오공고 금속과에 재학 중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선반 작업 실습에 나섰을 때의 일이다. 그 역시 면장갑을 착용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내 교사들에게 엄청나게 큰 호통을 들었다고 한다. 면장갑을 껴으로써 작은 찰과상은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잘못해서 드릴 날에 장갑이 말려 들어갈 경우 골절, 절단 등의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때부터 장 대표는 안전에 남다른 시각을 갖게 된다. 그가 매일 현장을 5~6회 정도 순찰

하면서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행동을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안전관리를 전개하는 이유다. 장관섭 대표는 “서른하나라는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까지 회사가 끊임없이 성장·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내리사랑의 감성안전 전개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는 40~50대 중장년층 근로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기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주)영광YKMC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이곳은 20~30대 근로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젊은 근로자들이 많은 이유는 장 대표가 전개하고 있는 감성안전 경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사업장의 대표’라는 직책 보다는 ‘사회에서의 아버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런 신념에 따라 그가 적극적으로 펼친 활동이 바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삼식을 제공하고, 근무 시작 전에 국민체조를 실시한 것이다. 이 같은 활동은 근로자들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다지는 효과를 불러온 것은 물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대내외적인 평을 듣고 있다. “아침을 먹지 않고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오전 10~11시쯤에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생산성 하락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저하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지요.”

그가 전개하고 있는 감성안전경영의 면모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1 면담을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장 대표는 회사 경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한편 근로자들의 심리적인 안정도 챙기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매일 아침 근로자들의 컨디션을 체크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이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기도 하다. 즉 마음의 안전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는 실로 감성안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 총력

안전에 대한 장 대표의 신념은 확고하다. “제품은 만들다가 불량이면 폐기하고, 다시 만들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신체는 한번 훼손되면 영원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안전을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장 대표의 이와 같은 신념은 (주)영광YKMC 아산공장의 곳곳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공정라인 설계부터 건물 설계까지 모두 장 대표가 직접 회사 실정에 맞게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호이스트와 크레인의 체인을 이중으로 설치한 것은 물론 공장의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대차 레일을 깔아 놓아 중량물 취급에 의한 근로자들의 안전 사고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그의 신념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주)영광YKMC에서는 그의 진두지휘 아래 다양한 안전관리가 전개되고 있다. 안전 제안제도를 시행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고, 매일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해 안전 의식 고취에도 앞장서고 있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근로자들의 마음을 스스로 움직이는 감성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장관섭 (주)영광 YKMC 대표이사. 앞으로 그의 안전관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진다. ☺